

강경에 작가의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31 번상도'.

붓 끝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담다

사경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과 바탕지에 담은 수행법이다. 사경 수행의 결과물로 남은 경전은 불교의 삼보중 하나로 예로부터 법사리로 존송돼 왔다. 그 이유는 경전 없이도 광선유포를 통한 교육과 전법 등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설하는 진리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온전히 전해지는 바탕에는 사경이 있다. 사경 없이도 수지 독송 위인연설이 있을 수 없다. 사경을 하게 되면 자기정화가 되는 공덕을 받을 수 있어 일반 불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다.

본, <금강경> 선장본, <천수경>, <보현인도라니경>, <불설아미타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발심수행장 등 8점이 벽에 걸린다.

또한 현대사경품으로는 '화엄일승법계도' '보리방편문' '신묘장구대다라니' '계초심학인문' '의상조사 법성계' '금강경 병풍' '아미타경 보탑도' '관세음보살수주수진언' '팔정도 육바라밀 만다라' 등이 전시된다.

사경작가 강경애, 첫 개인 사경전

10월 20일까지 인사동 미술세계서 전통과 현대 사경 등 총 30여점 전시

이번 작품들은 백지, 감지, 황지 등에 먹이나 금니 은니로 공경의 뜻을 표현하며 보다 세밀히 다루기 위해 세밀로 글자 크기를 1.5센티미터를 넘지 않게 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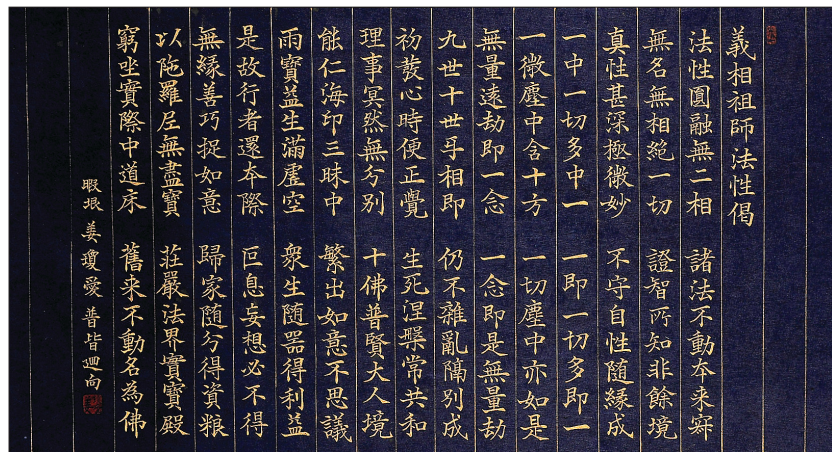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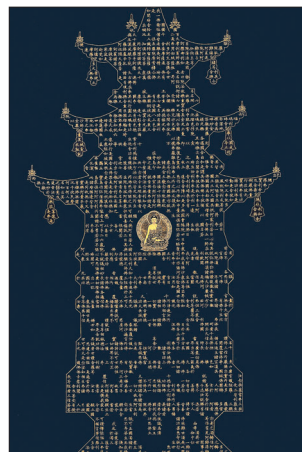
강경애 작가는 "제 사경작품은 고려 전통 사경에 바탕을 두고 재 표현하려고 힘쓴 것들입니다. 많은 예술적 감각을 가미

하고 현대 사경의 의의를 다음으로써 현대인들에게 공감과 사경의 예술성을 다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작가는 "사경은 경전을 옮겨 쓰는 행위이므로 시작부터 끝 마무리까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며 "그래서 가장 마음이 차분하고 맑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서사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전통사경 기능전승자는 강경애 씨의 사경작품세계에 대해 "현재 금니와 은니를 선택하며 맑게 구사하는 사경수행자는 국내에 몇 안된다"며 "강경애 작가가 도달한 사경수행의 예술적인 경지는 국내외 사계계의 가장 권위있는 행사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사경전에 2회 연속 초대받는 것만으로 충분히 증명됐다"며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노익장과 불심으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 1시간 참선명상을 한 뒤 사경 수행에 임한 강경애 작가의 작품들은 예술성을 뛰어넘어 불자들에게 환희심과 초발심을 불러 일으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경 원쪽은 '감지금니 아미타경 보탑도', 오른쪽은 '감지금니 의상조사 법성계'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IT혁신의 아이콘 배경은 '선불교'

스티브 잡스 사망 4주기 즈음하여

스티브 잡스 사망 4주기(10월 5일)를 맞아 각종 언론에서 그의 삶과 정신에 대해 보도하였다.

많은 젊은이가 인생의 멘토로 스티브 잡스를 꼽는다. 부자였기 때문일까? 성공했기 일까? 아니다. 창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 자마자 대학을 나오지 못한 어머니와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아버지에게 입양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자신도 대학을 나오지 못하였다. 심지어 자신이 설립한 애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자신이 고요한 사람이 자신이 해고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기에 성공하였고 다시 애플사를 이끌었다.

취재함으로써 죽기 몇 년 전인 2005년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은 이렇게 끝이 난다.

"완벽은 보낼 게 없는 것이 아닌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이다"

"끊임없이 갈구하라. 바보짓을 두려워 말라."

스티브 잡스는 마이다스(Midas)의 손을 지녔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인수하여 이름을 픽사로 바꾼다. 그리고 10년 동안 6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할리우드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로 성장시킨다. 10억 달러의 적자를 낸 애플사를 1년 만에 4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내도록 운영하기도 했다. 애플 리사(Lisa),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그가 만든 제품들은 모두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제품들은 기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 공통점은 단순하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을 만들면서 전원 버튼을 없애려고 지시하였다. 스티브 잡스의 발상은 실로 놀랍다. 스티브 잡스는 모든 기기에는 전원 버튼이 있어야 한다는 발상을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스티브 잡스의 발상이 혁신적인 이유는 명상수행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한 후 사과 농장에서 일하다가 오토가와 고



생전의 스티브 잡스(1955년 2월 24일~2011년 10월 5일)의 모습. 미국 애플사의 창업자로 맥킨토시 컴퓨터를 선보였으며, 이후 애플을 잠시 떠나 있기도 했다. 애플 CEO로 복귀해서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출시하며 전 세계 IT 시장을 선도했다. 이런 그의 바탕에는 젊은 시절부터 심취했던 선불교가 있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내놓은 제품들. 왼쪽부터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모두 아이콘을 최대한 단순화 했다.

본 치로라는 일본 승려를 만났다. 스티브 잡스는 인도 히말라야에서 7개월 동안 수행을 하기도 했다. 스티브 잡스는 명상 수행 경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명명할 정도였다.

"완벽이란, 더 이상 무언가를 보낼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더 이상 무언가를 뺄 것이 없는 상태이다."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은 대단히 선적(禪的)이다. 살고 무엇을 더 보태려고 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무언가를 뺄 것이 없을 때 완벽해진다.

소동파와 양대라 하여 소·황(蘇·黃)이라 불렀던 송대 시인인 황산곡(黃山谷)은 회당(晦堂) 조심(祖心) 선사를 찾아가 선법의 요체를 물었다. 그러자 회당 선사는 "나는 자네한테 숨길 게 없다."고 가르쳐 주었다.

황산곡이 회당 선사의 말에 사족을 붙여가며 풀이하려고 하자 회당 선사는 "그게 아니다."고 꾸짖었다.

어느 날 황산곡이 회당 선사를 따라 산행을 가게 되었다. 때마침 물푸레나무꽃이 만개하여 그 향기가 계곡에 가득하였다. 회당 선사가 황산곡에게 물었다. "물푸레나무꽃 향기가 나지 않나?"

"예, 납니다."

"나는 자네한테 조금도 숨길 게 없네." 그 순간, 황산곡은 도(道)의 편재성(遍在性)을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깨쳤다고 한다. 이처럼 선(禪)은 정신세계를 소조(塑造)하는 과정이다.

스티브 잡스는 진정한 창의력은 욕망할 때가 아니라 지족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회당 선사는 숨김 없는 마음이 바로 지극한 깨달음을 일깨워준다.

유용우 작가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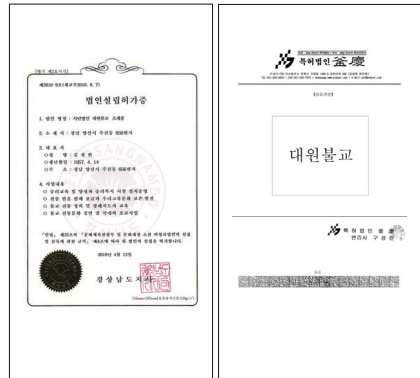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우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조계종협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우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우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총회 총회회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원장 석용우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원오 의전부장 석명오 바우회회장 석도현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미산총무원장 석법경 강서총무원장 석해륜	대전총무원장 석법오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회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승현 전국신도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슬위원장 임대일 중앙봉사위원회 대자비 중앙예술위원장 이선혜 불사추진위원장 김홍중	세계평화와 국내안민을 위한 수륙대제 금번 본 종단에서는 2015년도 수륙대제를 병행 하오니 모든 종도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참례를 바랍니다. • 행사일시 : 2015년 양력 10월 18일 (셋째 일요일) 10시 • 행사장소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478-6 조선해양문화관 • 문의전화 :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010-3565-2462번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종 안내 ◆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법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6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